금속노조
충남지부
원청교섭
투쟁본부
2026. 1. 28

2026. 8. 10 ⑮

# 진짜사장·진짜교섭

*원청 단체협약 쟁취!*
*모든 불법파견 철폐!*
*금속 산별교섭 완성!*
*노동자 단결과 연대!*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 현대제철비정규직·내화조업정비 현대모비스 아산·천안·서산·아산물류·EBS천안 비엠아이 테크젠

# 현대모비스 원청교섭 쟁의행위 압도적 가결로 총파업을 준비하자

결렬선언 → 조정신청 → 쟁의행위 찬반투표 → 쟁의권 확보 → 총파업

**충남지부 지회별 총회 : 현대모비스천안 8/12~14 · 서산 8/14 · EBS천안 8/18 · 아산물류 8/18~19 · 아산 8/19**

## 시간 끈다고 흐지부지되지 않는다 교섭 안 나오면 나오게끔 만든다

현대모비스는 금속노조 25개 지회, 6개 업체, 7,300여명의 하청·자회사 조합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단 한 번의 반응도 없었습니다. 금속노조가 3월 10일 현대모비스에 단체교섭 상견례를 요청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발송한 이후 5월 8일 1차 교섭부터 7월 2일 6차 교섭까지 원청은 어떠한 입장도 없이 불참하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모트라스, 유니투스, 동원로엑스, 현대IHL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청·자회사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시간이 지나 금속노조의 원청교섭 투쟁 기세가 사그라들고, 하청·자회사 임단협이 끝나면 현장은 원청교섭 요구를 접고 차분(?)해질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희망일 뿐입니다.

노조는 회사에 단체교섭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싸웁니다. 노조는 교섭과 투쟁의 원칙를 지키고 절차를 밟습니다. 교섭을 결렬했고 이제 우리 계획대로 갑니다. 이번 현대모비스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총회)는 현장의 원청교섭 투쟁의 의지를 확인하고,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한 총파업을 실제로 준비하고 조직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하청·자회사 총파업이 그랬듯 압도적 가결로 현장의 요구와 의지를 현대모비스에게 보여줍시다.

▲ 5월 8일 모트라스 아산공장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1차 원청교섭. 금속노조 25개 지회, 7,300여명의 조합원들을 대표한 교섭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첫 발을 내딛었다.

▲ 5월 18일 유니투스 김천공장에서 열린 금속노조 결의대회. 램프 매각 투쟁은 우리에게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 왜 우리는 원청교섭에 사활을 거는지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 현대차 계열부품사 구조조정 가속화 곧 다가올 자본의 광풍에 맞설 준비하자

유니투스 램프공장 매각투쟁은 명확히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한 싸움이였습니다. 자회사의 앞날은 현대모비스가 결정하고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도 원청에게 있다는 것이 눈앞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년과 다르게 노조가 자회사 모트라스-유니투스 임단협 교섭을 신속히 개시하고, 역시 신속하게 쟁의권을 확보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회사 노동자들의 규탄과 항의와 요구의 장소는 천안 유니투스 본사가 아닌 서울 현대모비스 본사였습니다.

파업투쟁을 통해 현대모비스를 노사합의 주체로 끌어낸 성과와 현장투쟁을 포기하고 원청 자본에 교섭 주도권을 내어준 한계가 공존하는 램프 매각투쟁이였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램프 매각 투쟁의 성과를 이어가고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통해 노동조건과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쟁의권 확보와 실질적인 총파업은 우리의 고용과 생존을 지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현장의 압도적인 파업결의, 조합원의 결기를 보여줍시다. 이제 눈 뜨고 우리 권리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합시다. 싸움은 저들이 시작했고 우리가 끝냅니다.